

냉전과 탈식민주체의 분열 - 민족개념의 변용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를 거치는 시기동안, 민족이라는 탈식민주체의 개념이 어떻게 변용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냉전의 영향이 어떠했는지에 주목할 예정이다. 크게 세 번의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1945-46년 민족개념의 호명: 임정과 신탁통치논쟁
- 2) 냉전 이데올로기와 주체분열: 좌우갈등과 민족기호
- 3) 감정공동체로서의 재편: 한국전쟁과 '반민족' 담론

1. 서론

- 해방과 함께 새로운 정치, 주체, 실천, 전환이 불가피
- 상징적, 정서적 차원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절실 (제도전환은 지체...)
- 주도권 싸움이 불가피 (해외/국내, 우파/좌파, 지식인/민중 차원...)
- 공적 개념의 선점, 활용이 중요 (독립, 건국, 민주주의, 민족, ...)

2. 방법론

- 지식장 : 특정 개념이 관련어들과 결합하여 총체적 세계관, 시대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문화적 공간 (개념, 패러다임, 이론, 세계관 등의 공유, 유통)
- 일제하의 지식장 (field) : 3개로 구분 가능 (국내/국외, 좌/우를 두 축으로) = 공식 지식장 / 해외 지식장 / 계층화된 지식장
- 해방과 함께 이 지식장이 하나로 통합 = 내부의 개념격차, 이견 대립, 헤게모니 쟁투
- 계기적 사건, 충돌 - 개념분화와 변형, 대립

** Melvin Richter 의 네 단계론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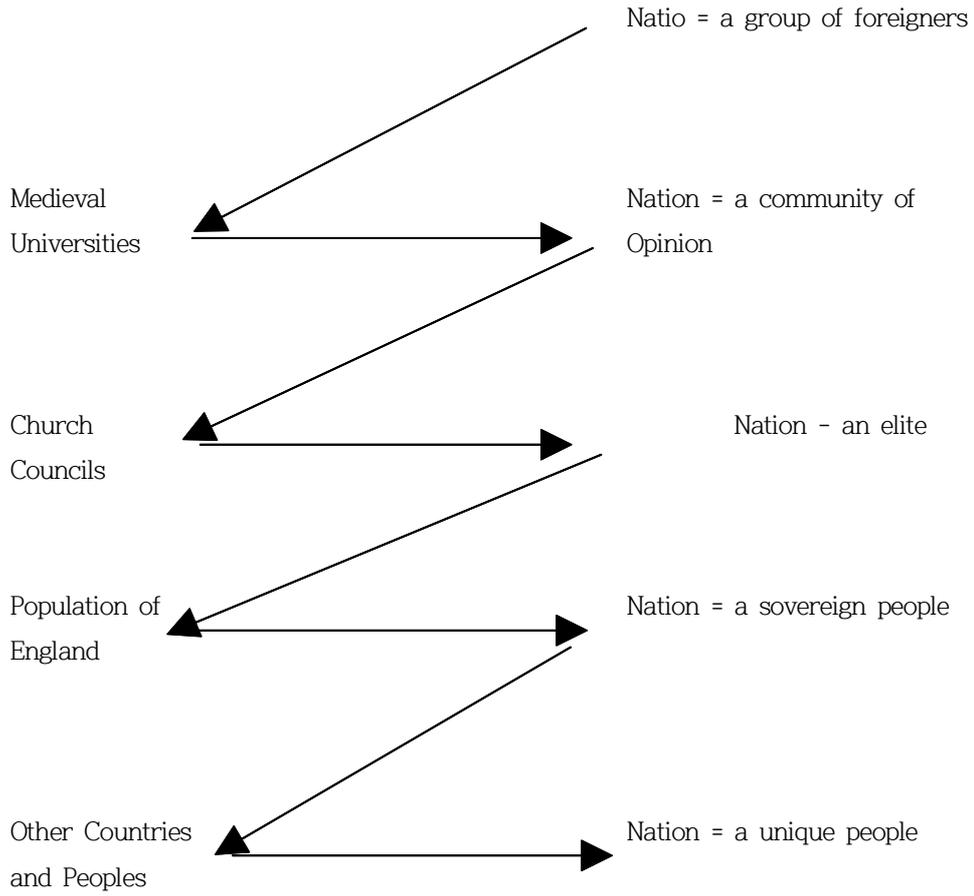
시간화 - 개념이 기능하는 공간, 지평의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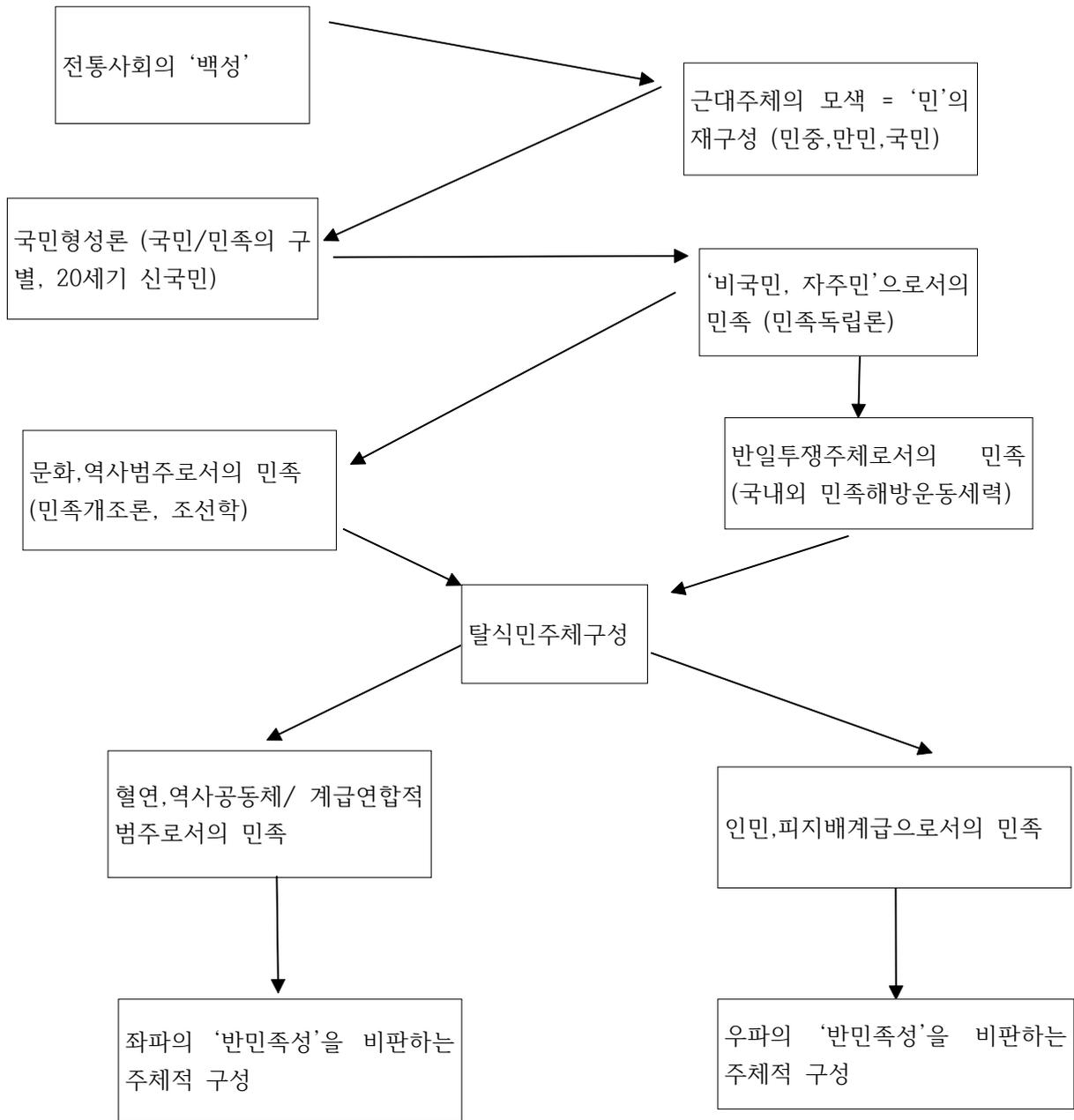
민주화 - 개념의 확산, 공유, 대중화

이데올로기화 - 전문적인 해석, 이념, 세계관과 결합

정치화 - 개념이 도구화, 공격의 무기화,

[서구 네이션 개념의 의미변천] - Greenfeld





3. 1945-46년 민족의 호명: ==> 충분히 '민주화' 되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화'

- 해방 직후에는 '민족'이란 말이 즉각적으로 널리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 동포, 백성, 인민, 대한인과 같은 즉자적 자칭 어휘)
- 언어, 문자, 혈통, 감정, 관습의 공유체로서의 주체구성 (이름회복, 문자회복, 강요된 생활 폐기... ==> 탈식민화의 내용들)
- 45년 9월 2일에 조선어학회에서 초중등학교에서의 한글교재 편찬과 체육 등에서의 한글구령을 정하는 일을 시작한 이래(매일 45.9.3.) 언어에 대한 관심 표출. 9월 18일 미군정 학무국의 신교육방침에서는 '교육용어는 조선어'임을 확인(매일 45.9.18.).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한글문화보급회가 결성되고 10월 9일에는 해방 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기념행사로서 499회 한글날 기념식을 거행. 11월 20일에는 '우리말 교과서 반포식'이 거행되었다. 46년 3월에는 일본어 개념을 금지할 목적으로 학술용어제정위원회가 설치되고 4월에는 학술어제정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과학총위원회가 설립되었다. 미군정은 46년 10월에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 46년 10월 23일 법령 122호인 '조선성명복구령' 이전부터 이름의 복구.
-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신조선문화의 건설'을 표방하면서 "유구한 역사 아름다운 언어 전아한 예술의 전통과 더불어 혈한의 투쟁 속에 자라나던 신문화 30년의 노력"을 동시에 종합하자고 말하였다 (매일 45.8.18.).
- 북한 역시 46년 5월에 국정교과서를 편찬하기 시작하였고 김일성 종합대학의 초대총장에는 김두봉이 임명되었다. 47년 2월에는 조선어문연구회가 설립되었는데 '조선어문의 통일과 발전을 기하는 것은 조선민족문화 건설의 기초를 닦는 것'이라고 주장.
-
- '민족'이란 객관적 개념, 대자적 어휘를 필요로 하게 되는 두 계기
- 1) 건국의 정당한 주체성과 관련하여: '친일' 세력 척결, 배제의 논리 ==> "반민족행위", "민족반역자", "민족적 정기"....
- 2) 국가건설에서 사회세력의 연합, 통합주체의 필요성: '민주주의'의 문제 ==> 계급보다 민족이 우선, 민족에 기반한 국가건설....

원형적 요소들이 강조됨

- 언어, 문자
- 독립희생자 (순국선열)의 영웅화
- 45년 10월 28일 순국의열사봉건회 구성. 선열전기편찬위원회 구성. 11월 1일에는 독립신문사 주최 순국열사위령제 개최, 12월에는 신채호,이회영 등을 추념하는 순국선열 43위 추도회가 개최. 천도교에서는 손병희 추모행사 거행. 46년에는 안중근 의사 동상건립기성회가 활동. 3월에는 나석주, 안창호, 이동녕 등을 추모하는 모임들 준비. 이외에 이윤재, 권오설, 이준, 민영환 등의 추념대회가 각기 준비. 각종 행사에서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이 중요한 의례의 하나로 자리잡기 시작. 윤봉길,이봉창,백정기 3인의 유해환국과 추도회 행사가 임정의 존재감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준비. 46년 민주의원에서 3의사 유해봉환 추도식을 추진하기 시작하여 4월 25일에 이들의 유해 환국. 6월 20일에는 이들의 국민장이 발표되었고 7월 7일 그 장례가

거행. 이런 죽음에의 의례는 정부수립 후 군부 내의 주요 활동으로 정착되었다. 48년 12월 1 일에는 제1차 전몰장병 합동위령회가 이듬해는 순국장병 합동위령제가 각기 거행.

- 혈통 (단일민족론, 단군국조론) 강조
- 46 개천절 국경일화 - 개천절은 원래 대종교의 종교행사였는데 국내외의 독립운동세력이 이날을 기념하여 민족적 정체성과 결속력을 다지는 행사들을 개최. 10월 27일 (음력 10월 3일)에 개최된 개천절은 '4279년 전 성조 단군의 국가창건일'이었다고 언급됨으로써 대종교의 행사로부터 국가와 민족의 행사로 격상. 당시 문교부장이었던 유억겸은 축사에서 '가장 순결한 혈통을 가진 단일한 민족으로서 계계승승' 할 것을 강조. 46년에 공포된 조선성명복구령에서는 개개인의 출생연도를 단군기원으로 개정.
- 총체적으로 '민족' 개념이 자리할 지식체계, 공유된 의미망이 충분히 자리잡지 못한 상태에서 원초적인 요소들이 적극 부각됨

4. 민족기호와 주체분열: 이데올로기화 없는 정치화

- 두 계기
- 1) 신탁통치안의 영향 - 이념과 '민족' 개념의 연계
- 좌파에 대한 '반민족적' 이란 공격 / 좌파 역시 '민족적'임을 강조하는 담론 강화
- 45, 46년 정치회합에서의 의례 유사성 (우파 = 개회사, 선언문낭독, 축사, 타종,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그리고 만세삼창의 순// 좌파 = 개회, 선열에의 묵념, 애국가, 국기계양, 해방의 노래, 기념노래, 경과보고, 선언서 봉독, 투쟁사 보고, 그리고 만세삼창의 순서)

- 좌우 분열과 민족개념의 무기화
- 김규식, '좌우 별도로 개최된 것은 유감된 일이나 다 같이 민족적 양심에서 3.1절을 기념한 것은 사실' - 이승만, '한국이 지금은 공산주의를 원치 않는다는 결심'을 입증하는 사례 - 안재홍, '그때 없었던 계급분열로써 민족해방의 대의를 위해함을 허치 않는다'고 분열 비난
- 김일성은 3.1운동 기념대회에서 "자기 동포가 자기 민족을 착취하는 소작제도를 취소하고 농민에게 받을 주는 원칙하에서 토지문제를 해결" 할 것을 강조.
- 46년 7월 27일 조선공산당, 민족통일전선에서 계급투쟁으로 노선을 전환

개념의 정치화 - 국민, 종족, 인민과의 구별

(전 민족을 포용할 수 있는) 문화공동체가 완성될 때에만 조선인은 단순히 인종이나 단순히

5. 냉전 주체의 구성: 한국전쟁과 이데올로기

[참고 텍스트]

[대한매일신보] 1908년 7월 30일자 논설에 '민족과 국민의 구별'

국민이라는 명사는 민족 두 글자와 구별이 크게 있거늘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왕왕 이 두 용어를 혼칭하니 이는 불가한 일이라... 민족이란 것은 단지 동일한 혈통에 속하며 동일한 토지에 거주하며 동일한 역사를 가지며 동일한 종교를 받들며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면 동일한 민족이라 가히 칭하는 바이거니와 국민 두 글자는 이처럼 해석하면 불가할지라. 대저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의 동일함이 국민되는 요소가 아님은 아니나 단지 이것만이 동일하다고 꼭 국민이라 말함은 불가능하나니... 민족을 가리켜 국민이라 칭함이 어떻게 가능하리요.

국민이란 것은 그 혈통, 역사, 거주, 종교, 언어의 동일한 것밖에 또한 필연적으로 동일한 정신을 가지며 동일한 이해를 느끼며 동일한 행동을 하여 그 내부의 조직이 한 몸의 골격과 흡사하며 그 대외의 정신이 한 병영의 군대와 흡사해야 이를 국민이라 말하나니...

오호라 고대에는 국민 자격이 없는 민족이라도 가히 한 구석에서 기반을 두어 토지를 경작하며 자손을 기르며... 생활을 했거니와 금일에 이르러서는 만일 국민 자격이 없는 민족이면 대지 위에 눌러앉을 땅이 없을지라. 예컨대 미주의 인디언이 처음에는 변창하는 민족이었으며 호주의 흑인이 처음에는 역시 그 무리가 무성한 민족이었지만....단지 국민 자격이 다 갖추어지지 못한 이유로 그들이 20세기의 우승열패의 시대를 만나서 자연 쇠퇴하였는데, 도태의 법칙을 피하지 못한 소이가 아닌가...

前 文

悠久한 歷史와 傳統에 빛나는 우리들 大韓國民은 己未 三一運動으로 大韓民國을 建立하여 世界에 宣布한 偉大한 獨立精神을 繼承하여 이제 民主獨立 國家를 再建함에 있어서 正義人道와 同胞愛로써 民族의 團結을 鞏固히 하며 모든 社會的弊習을 打破하고 民主主義 諸制度를 樹立하여 政治,經濟,社會,文化의 모든 領域에 있어서 各人의 機會를 均等히 하고 能力을 最高度로 發揮케 하며 各人의 責任과 義務를 完遂케 하여 안으로는 國民生活의 均等한 向上을 期하고 밖으로는 恒久的인 國際平和의 維持에 努力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子孫의 安全과 自由와 幸福을 永遠히 確保할 것을 決議하고 우리들의 正當 또 自由로히 選舉된 代表로서 構成된 國會에서 檀紀4281年7月12日 이 憲法을 制定한다.

檀紀4281年7月12日

역사발전의 방향에 있어서는 '전진'이나 '반동'이나? 사회구성의 성격에 있어서는 '특권적'이나 '인민적'이나? 정치형태에 있어서는 '팻쇼적'이나 '민주적'이나? 정권의 주체는 '인민'이나 '특권층'이나? 즉 조선민족의 세계사적 방향과 사회적 존재의 민주적 세계를 실천하라는 건곤일척의 판국인 것이다.

人民과 極히 近似한 개념으로 國民,民族,民衆이란 말이 있다. 國民이란 간단히 말하여 일정한 國家에 속한 民衆의 總稱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民族이란 개념도 역시 國民과 비슷하여 비록 獨立한 국가에 법

적으로 속해 있지 안코 過去의 朝鮮民族과 가치 他國의 지배하에 있을 때라도 人種의 또는 言語의 기타 약간의 주로 自然史的 共通性을 가진 일정한 人間의 총칭이라고 볼 수 있다. 거기에 비하여 民衆이란 이 위의 두가지 말과는 若干 다른 점이 있다. 한 國民 한 民族 가운데서도 民衆이란 大衆이란 말과 가치 주로 被治者를 가르치는 말이다. (중략) 人民이라는 것은 (중략) 勞動者나 農民, 기타 中間層이나 知識階級 등을 包攝하는 意味에 있어서 이 말 가운데에는 被搾取의 社會階級을 土臺로 한다는 일종 濃厚한 社會階級的인 要素가 보다 더 만흔 概念이다. 現代가 民衆이란 말 대신에 人民이란 말을 쓰는 것은 아마 현대에 있어 社會的 矛盾의 解決에 國家的 民族的인 여러 가지 問題보다도 基本的인 問題로 되어 있는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 文學이 人民에게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여 文學이 현대의 社會的 矛盾的 解決의 一端과 關係를 맺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임화, 문학의 인민적 기초, 1945)

정치학적 명칭인 국민의 이름의 이름에서가 아니라 참으로, 비로소 민족으로서의 이름 밑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상전과 노예의 관계에서는 상전의식이나 노예의식은 있을 수 있어도 참된 순수무구한 동포의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계급적으로 엄격한 문화적 국경을 고수하면서 참된 민족적 공감을 일거에 무조건적으로 기대한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무나 낙천적인, 너무나 안이한 주문 (박치우).

민족은 혈족과 달라서 역사적, 사회적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동족 가운데 어느 분자가 일정한 표준에 의하여 민족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이다. 자연적 존재인 혈족으로서의 종족으로부터 역사적, 사회적으로 규정된 비민족적인 것을 제외하고서 민족은 성립된 것이며, 또한 그러한 것들의 제외를 위한 투쟁을 통하여 민족은 형성되어 온 것이다. (강조 및 중략-인용자) 이러한 결속을 통하여 형성되는 민족의 구성요소는 무엇인가? 민족의 구성요소는 결국 노동자, 농민, 소시민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그것은 전 세기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민족내부의 모든 특권층을 제외한 인민들의 인민전선적 집합체인 것이다. 요컨대 현대에 있어서도 민족은 인민이요, 인민의 이념만이 민족의 이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947년 4월에 발표된 임화의 「민족문학의 이념과 문학운동의 사상적 통일을 위하여」).